

이야기 4: 솔로몬

주제말씀
[열왕기상 3:9-10]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리라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은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무척 사랑했어요. 이스라엘에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산당(제단이 있는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답니다.

어느날 솔로몬 왕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기브온으로 갔어요. 그곳에는 큰 산당이 있었어요. 솔로몬 왕은 그 제단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서는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어느 날, 솔로몬 왕의 꿈속에 하나님이 찾아 오셨어요.

“솔로몬아, 너의 소원이 무엇이니?” 솔로몬이 대답했어요.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솔로몬 왕의 대답을 아주 기뻐하셨어요.

그때 두 여인이 한 아기를 안고 솔로몬 왕 앞에 나아왔어요. 두 여자는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다투었어요.

솔로몬 왕은 잠시 생각하더니 하나님의 지혜로 놀라운 판결을 내렸어요.

“저 살아있는 아기를 둘로 나누어라. 그래서 아기 반쪽은 이 여자에게, 나머지 아기 반쪽은 저 여자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라!”

사람들은 너무 놀랐어요. 그러자 한 여자가 울면서 말했어요. “제발! 아기를 살려주세요!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세요.”

그러나 다른 한 여자는 눈을 흘기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요. 칼로 나누세요! 그래서 제 아기도 아니고 저 여자의 아기도 되지 않게 해 주세요.”

잠시 후,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마지막 판결을 내렸어요.

“아기를 살려달라고 말하는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는 저 아기를 사랑하는 참 어머니이니까!”

이렇게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재판을 지혜롭게 할 수가 있었어요.

솔로몬 왕이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려서 나라가 평화로웠어요.

그 소문이 이웃 나라에까지 퍼져 모두가 솔로몬 왕의 지혜를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왕을 만나러 찾아왔어요.

스바 여왕도 많은 금과 은, 여러 가지 보석들과 향기로운 향품들을 잔뜩 낙타에 싣고, 솔로몬 왕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로 여행을 떠났어요.

지혜를 찾아 이스라엘까지 먼 길을 떠나온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 왕에게 질문했어요. 그때마다 솔로몬은 척척 대답을 했어요.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며 그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솔로몬 왕은 이번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다짐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 속에서 7년 동안 정성스럽게 건축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자 솔로몬 왕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기도를 한 후, 두 손을 높이 들고 백성들을 축복했답니다.

● 다음 성경구절을 따라쓰고, 암송해 보세요 (열왕기상 3:9-10)

주의 마음에 든지라



활동 1.

아래 성전에서 각각의 모양에 맞는 색을 칠해보세요.

준비물: 색연필



활동 2.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아래 그림을 색칠해 보세요.

